

정부,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전 3058명’ 확정할 듯

의총협 긴급회의 교육부에 ‘증원 0명’ 건의…오늘 발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17일 공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회의를 열어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정부가 ‘전원 복귀’ 시 약속했던 3058명으로 내부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에 배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대생은 이달 초까지 거의 전원 등록·복학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다수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전원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현재로선 3058명 안 외에는 수업 참여를 설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총협)도 이날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합의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를 토대로 내일(1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 발표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상증상 있거나 간이키트 양성이면 살처분”

방역당국, 구제역 대처 뒤늦게 확정

구제역 대처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남도와 방역당국(광주일보 4월16일 2면)이 살처분 기준을 뒤늦게 확정했다.

전남도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을 보인 돼지만 살처분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구제역 확진 농가 내에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만 살처분하기로 했지만,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없는 탓에 방역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 배설양이 타 우제류에 비해 많고, 돼지는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들어간 전남도는 지난 15일 늦게 농식품부로부터 임상증상을 보이거

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을 받은 개체만 살처분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감염 여부 확인하려면 3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전남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도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결과와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축이 확인되면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바이러스 검출 일로부터 3주 간 이동을 제한하며 가축, 임상검사, 항체검사,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때에만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 농가 내 살처분되지 않은 돼지에 대해 2주 간격으로 백신을 2회 추가 접종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韓영화, 올해 칸영화제 초청작 ‘0’…26년만의 굴욕

한국 영화가 올해 칸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 등 공식 부문에 초청되지 못한 데 이어 감독·비평가 주간 등 비공식 부문의 초청장을 받는 데에도 실패했다. 한국 장편 영화가 칸영화제의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에서 모두 초청이 불발된 건 26년 만의 일이다.

칸영화제 감독주간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78회 칸영화제 상영작 명단에는 한국 영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 감독협회가 차별화된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1969년 신설한 감독주간은 칸영화제의 비공식 부문 중 하나다.

그동안 류승완 감독의 ‘주먹이 운다’ (2005), 봉준호 감독 ‘괴물’ (2006), 연상호 감독 ‘돼지의 왕’ (2012) 등이 이 부문을 통해 상영됐다. 홍상수 감독의 ‘우리의 하루’는 2023년 감독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 영화는 또 다른 비공식 부문인 비평가주간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프랑스 비평가협회가 1962년부터 주관한 이 부문은 신인 감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식 부문에 이어 감독주간과 비평가주간에서도 초청받지 못하면서 올해 칸영화제에선 한국 장편을 한 편도 볼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경호처 저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대통령 집무실 CCTV 포함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나섰지만 모두 불발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

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집행 거부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지하철 시트 5월까지 ‘전면 교체’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시트가 개통 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교체된다.

지하철 객실내 악취와 위생 문제 등이 지적되자 예산 확보 문제로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했으나, 올해 예산을 확보해 전면 교체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광주교통공사는 승객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전동차 객실 의자를 전면 교체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4억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23편성 92량 4820석의 시트를 모두 새 시트로 교체 하는 것이다.

승객들이 좌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리별로 색깔(일반석 녹색,교통약자석 남색,임산부배려석 분홍색)을 구분하고 노후화된 의자의 프레임을 재도장하는 등 이용객 편의성과 전동차 내 미관 개선할 방침이다.

교체되는 지하철 1호선 좌석 시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켓’(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코트나 재킷에 쓰임) 소재로 동일하다. 난연 소재로 객실 내 화재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오염될 경우 잘 지워지지 않고 악취가 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플라스

틱 소재의 시트로 변경은 힘들다는 것이 교통공사의 입장이다.

전 좌석을 플라스틱 시트로 교체할 경우의자 골격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하고,12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또 전동차 의자 변경을 할 경우 타 지역으로 전동차를 이동해야해 공사기간도 길어져 지하철 이용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

조익문 교통공사 사장은 “모든 전동차를 대상으로 세균오염측정기(ATP)를 사용해 오염도를 수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살균소독과 고열 스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체 작업을 기간 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

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용

순천시 공고 제2025-1052호

해당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3ha)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여건변화(도로, 하천, 철도 등)에 따른 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7.

순천시 장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 위 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림리 860-7번지 등 154필지
- 목 적: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 근 거: 농지법 제31조,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농업진흥구역 38,729㎡ → 농업진흥지역 밖 38,729㎡
농업보후구역 25,040㎡ → 농업진흥지역 밖 25,040㎡

토지조사 및 토면: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순천시 홈페이지, 순천시 농정혁신국 농업정책과
- 열람서류: 관련 토지조사 및 도면(영문서 열람가능)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4. 16. ~ 2025. 4. 30.)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 의견제출처: 순천시 농정혁신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1-749-8677)
- 주소: 전남 순천시 순수읍 순수로 628

4. 기타사항

- 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1-749-86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변경 해제 대상 중 향후 금번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3년 12월 4일 상법 제 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되어 2025년 4월 7일 청산인 등기를 하였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17일

양흥주매 주식회사(062-225-93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29-5, 201호 (수기동, 고운하이츠1차)

청산인 김 채련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5년 2월 24일 임시주총회에 갈음한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채권 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주식회사 두기건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길 30, 2층

청산인 박진우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5년 04월 1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5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면으로서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5,000주를 당사가 회망하는 주주로부터 금 75,000원(액면가 10,000원)에 매수 후 임의소각 하여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당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주식회사 대호물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0, 네트럭하우스 201호(주삼동)

사내이사 조연석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1 순천지원
2024제고합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피고인: 1. 망 김성안

위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부족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4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용규, 김준영, 김은영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